

# 성모 발현지 프랑스 루르드 대성당



1858년 피레네 산맥에 있는 작은 마을 루르드의 마사비엘 동굴 앞에서 벨라멧따는 폭풍우 같은 바람과 함께 찬란한 빛을 보았다. 이내 후광이 비치며 흰 드레스에 하늘색 허리띠를 두른 그리고 흰 베일로 머리를 덮고 팔에는 묵주를 든 한여인이 나타나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라고 하셨다. 성모님의 발현이다. 성모님은 흠탕물인 루르드 샘물을 가리키며 그물을 마시고 또 몸을 씻으라고 하셨다. 벨라멧따는 시키는 대로 흠탕물을 마시고 몸을 씻자 물이 깨끗해지며 많은 양의 물이 나와 큰 샘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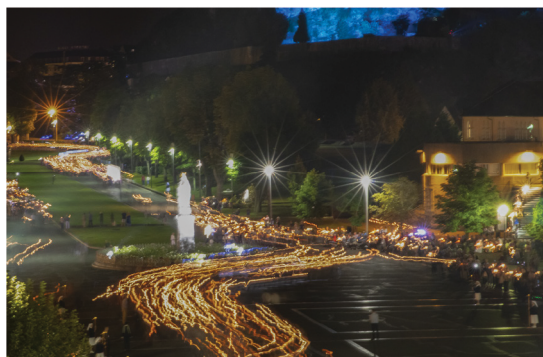
성모 발현 4년 후 교구장 로랑스 주교는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하고 성모 마리아의 소망에 응답하기 위해 곧바로 동굴 위에 성전 건립에 착수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퍼지고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영적인 회복과 기적을 간구하며 순례가 이어졌다.

우리 일행은 저녁 늦게 도착하였다. 이곳에 오는 환자 순례객들은 저마다의 희망과 기적을 바라고 오는 것일 것이다. 성지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성모님 관련한 성물, 촛불행진을 위한 온갖 기도용품, 액세서리 등을 파는 상점들로 더없이 붐볐다. 다음날 아침, 산아래 동굴 입구는 순례객들이 밤낮으로 태우는 촛불 연기로 그을려 있었다. 동굴 앞 미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기적의 샘물에 몸을 담갔다. 그날 저녁 날이 어두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촛불 행렬을 만들어 성모상을 중심으로 한 넓은 광장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나라와 인종의 구분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성모상을 부르며 나아갔다. 가슴 벅찬 행진을 마치고 로사리오성당 앞에 모여 같이 기도했다. 말과 글로 표현하지 못할 감동이 진하게 남아 밤늦게 까지 광장 주변을 떠날수 없었다.

루르드 대성당은 1871년 마사비엘 동굴 바로 위에 지어졌다. 성모님은 벨라멧따에게 "사제들에게 전해 이곳에 성당을 짓게 하십시오" 하고 당부함에 따라 3개의 성당 건축물이 이어졌는데 동굴 성당,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가장 크고 웅장한 로사리오 대성당이 건축되었다. 주교좌 성당처럼 광장을 낀 고딕풍의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로사리오 대성당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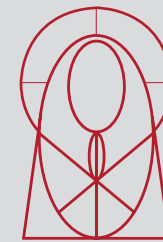
성모 발현 동굴 맞은편에는 환자들을 위한 요양 병원이 있다. 그곳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을 루르드 기적의 샘물로 몸을 씻어 주고 전례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해 400만명 이상의 신자와 환자들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성모발현이 있던 후부터 루르드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6천여 건의 치유가 일어났고, 그중 60여건이 교회에 의해 기적으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오직 한마음으로 모아 기적을 가능케 하는 신비함이 여기 있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SONY A7R 30mm, 1/125, F11

부활 제 7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2023년  
05월 21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조토 디 본도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1304-1306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 # 화답송 시편 66(65),1-3,7,4-5,6-7,16과 20(1)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7-23
-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음 마태오 복음28,16-20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128 봉헌 511 성체 163 파견 245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일 성당 이용 후 문단속과 소등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 문단속과 소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회 봉사자 분들께서는 미사 후 성당 내 모든 전등을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건물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휴지를 번기에 가득 버리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지도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 문명선 - 가족, 박재영(요아킴)
- 백봉화 - 가족, 박재영(요아킴), 어부들마을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허복(요한), 엄길자(세실리아) - 손흥구(바오로) 가족
- 김병학(바오로)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서범석(펠릭스), 김유진(마르첼라) 새가정 축하
  - 한상철(빈첸시오), 카도녀
-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올리아)
- 이희숙(테레사) - 전 달라라
- Eva Kalas - 정 테레사
- 민인숙(글라시아) - 정 테레사
- 오경선(원선시오) - 자모회
- 오애희(올리아나) - 오 요한, 자모회
- 정명숙(테레사) - 오 요한
- 황태진(필립보) - 김순옥(올리아)
- 박락준(베드로), 이서형(요안나) - 김순옥(올리아)
- 김민주(이스베리가) - 최정원(레지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5/14 주일 헌금 (146명).....	\$1,392
• 2차헌금 (유틸리티).....	\$487
• 교무금 .....	\$1,500

한철희(5-6)	오용덕(5-6)	최완준(4-6)
이호용(4-5)	조인(1-6)	김성일(4-6)

2차 헌금

• 5월 21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모성월 미사 안내

- 일시 : 5월 21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신부님께서 화관과 함께 입당하시면 그 뒤를 따라 사목회, 성모회, 꾸리아, 자모회, 요셉회에서 각 단체별로 준비한 꽃 바구니와 함께 입당을 합니다.
- 신부님 강론 후 신부님 주송으로 묵주기도 1단을 함께 바칩니다.
-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를 꾸리아에서 낭독합니다.
- 주일헌금을 봉헌하면서 미리 준비해오신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본당에서 준비한 꽃을 함께 봉헌합니다.
- 성모성월 미사에서 교우분들께 나누어 드릴 꽃 후원을 받습니다. 꽃 후원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이오니 도움 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메타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소주일 담화문 읽어 드립니다.

- 일시 : 5월 23일(화) 저녁 8시 30분
- 줌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Passcode: 1111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지난 주일 화장실 번기 막힘 문제 수리 완료
- 지난 주일 주일학교 채소밭 조성
- 금주 미사전 성모정원 나무 심기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28까지 약정 금액은 \$35,764.14 (목표금액의 96.66%)입니다. 현재 목표액에 \$1,235.86 미달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곽 올리안나     | 방진숙(테레사)  |

사무장 개인 사정으로 2달 가량 주일 미사에 참석을 못합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 지향 신청봉투와 예물은 주일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출근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무장에게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평일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732-258-5998)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본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7-23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를 위에 뛰어난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본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앞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염선을 임마누엘 신부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 적응한 분도 계실 테고,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주교 역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예식과 모임, 제도 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변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하느님 나라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승천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에 ‘짤’하고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으로 굴복시켜야 할 세상이라면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한 시대, 한 나라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하늘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오르시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의 하늘에 머무르시며,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위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어디에,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전만큼 성당 안에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대의 상처와 폭력에 고통 받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승천하십니다. 결국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이웃이 가진 아픔에 공감하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교회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 예수님의 승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